

제4회

2024 국산 콩 우수 생산단지 사례집



PART

I

사업소개

- | 1 |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소개
- | 2 | 전국 전략작물(두류 등) 공동경영체 현황(24년 기준)
- | 3 | 제 4회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

PART

II

우수사례

- | 1 | 대상 (전남 영암 군서농업협동조합)
- | 2 | 우수상 (경기 이천 모가영농조합법인)
- | 3 | 우수상 (전남 화순 천운농업협동조합)
- | 4 | 장려상 (경남 사천 콩사랑영농조합법인)
- | 5 | 특별상 (전북 부안 하이영농조합법인)
- | 6 | 특별상 (경북 상주 나누리영농조합법인)
- | 7 | 다수확상 (전북 진안 농업회사법인(유)문스빈)

사업소개





1.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소개	02
2. 전국 전략작물(두류 등) 공동경영체 현황	05
3. 제4회 국산 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	07



2024년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사업소개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이란 기존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을 바탕으로 식량작물의 논 타작물 전환을 집중지원하기 위하여 식량작물(논콩, 가루쌀, 국산밀, 잡곡류 등) 전반에 걸친 생산 및 유통 여건의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
- 논에서 재배되고 있는 쌀의 생산량을 감축하고, 논 타작물로의 전환을 육성하는데 주 목적인 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쌀의 과잉생산을 억제하여 적정 생산을 유도
-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 및 유통 여건을 개선하여 들녘(논+밭)의 규모화(50ha 이상)와 조직화를 통한 공동영농 및 공동경영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은 '들녘공동경영체' 운영주체(들녘)와 '논 타작물 단지'운영주체(단지화)로 구분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주요내용



교육·컨설팅 사업



- 선정 경영체당 사업비 3천만 원 지원(총 4회까지 지원)
- 지원 금액 비율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시설·장비 사업



- 선정 경영체의 운영주체 별 사업비 상이
 - 들녘공동경영체 운영주체 : 5~8억원 이내 지원(총 2회까지 지원)
 -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 : 1~3억원 이내 지원(총 2회까지 지원)
- 지원금액 비율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사업다각화 사업



- 선정 경영체 당 사업비 10 ~ 50억원 내외(총 2회까지 지원)
 - * 단년차 : 기존 시설에 대한 개보수일 경우
 - ** 다년차 : 신규 설치시 1년차에는 설계도 및 인허가, 교육·컨설팅, 계약 등 지원, 2년차에는 건축 시설 및 장비, 교육·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 지원
- 지원금액 비율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식량작물선도경영체교육훈련 사업



- 식량작물 관련 농업인 대상 교육훈련비 일부 지원
- 지원금액 비율 : 국고 50~100%, 자부담 50%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지원자격

-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소재 시군구에서 “식량산업종합계획”이 수립, 선정되어야 합니다.
 -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별표6)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 * 조합원 5인(시설·장비 10인, 다각화는 15인) 이상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 총 출자액 1억원(시설·장비 2억원, 다각화는 3억원) 이상
 -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미만 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제출)
 - * 설립 후 운영실적이(교육·컨설팅) 1년, (시설·장비) 2년, (다각화) 3년 이상
 - * 사업 신청 시부터 충족되어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까지 유지되어야 함
- ※ 논 타작물 운영주체는 조합원 5인 이상, 출자액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영체의 지원자격은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인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들녘공동경영체 : 공동영농 50ha 이상, 25인 이상, 3년간 30ha이상 순증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논 타작물 단지화 : 공동영농 10ha이상(논타작물 5ha이상), 15인 이상, 3년간 30ha이상 순증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단, 논타작물 면적이 10ha 이하 일 경우, 순증의무는 매년 10ha의 순증의무를 3년간 이행)



전라작물산업화지원사업 인정기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인정 기준

① 들녘공동경영체 운영주체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을 대상으로 2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하여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예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 농지 기준 :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논과 밭, 다만, 과수원, 목장 등은 제외

* 공동영농 농지가 일부 분산되어 있더라도 공동 농작업 수행이 가능한 형태로서 공동영농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로 인정

*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50ha 이상 공동경영단지를 1개소로 인정하되, 농지가 강이나 산으로 구분되거나 공동경영 면적이 400ha(밭 식량작물의 경우 150ha) 이상인 경우는 별도 경영체로 구성 가능

②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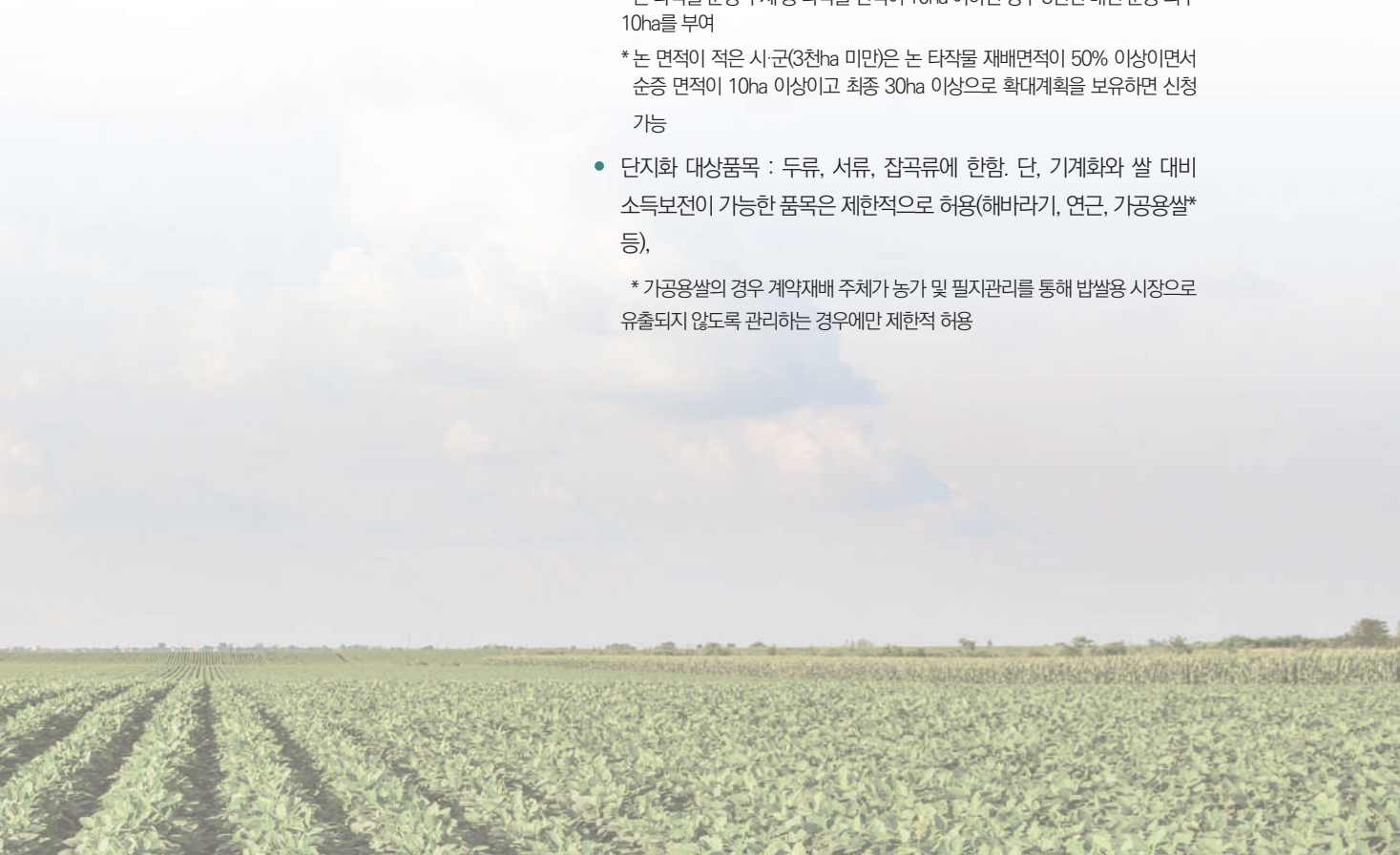
-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는 타작물 면적 5ha 이상, 공동영농면적 10ha 이상, 참여 농가수 15명 이상, '27년까지 추가로 30ha 이상 확대 계획이 있는 단지는 신청 가능

* 논 타작물 운영 주체 중 타작물 면적이 10ha 이하인 경우 3년간 매년 순증 의무 10ha를 부여

* 논 면적이 적은 시·군(3천ha 미만)은 논 타작물 재배면적이 50% 이상이면서 순증 면적이 10ha 이상이고 최종 30ha 이상으로 확대계획을 보유하면 신청 가능

- 단지화 대상품목 : 두류, 서류, 잡곡류에 한함. 단, 기계화와 쌀 대비 소득보전이 가능한 품목은 제한적으로 허용(해바라기, 연근, 가공용쌀* 등),

* 가공용쌀의 경우 계약재배 주체가 농가 및 필지관리를 통해 밥쌀용 시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허용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지원금사용



교육·컨설팅 지원



[교육비]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인식전환, 계약재배, 논 타작물 재배, 작부체계 전환, 발작물 연계 등 생산 및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및 친환경 인증 취득, 선진지 견학 등에 사용됩니다.

[컨설팅비]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경영개선(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작목 및 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생산비 절감 등) 등에 사용됩니다.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① 전략작물산업화 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 매뉴얼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설정·운영 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이 개발한 교육·컨설팅 표준 매뉴얼을 전수(傳受) 교육 및 인증 받은 컨설팅 업체(컨설턴트)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② 교육비와 컨설팅비는 개별 사용이 불가하며, 전략작물산업화 경영체 단위로 통합·운영되어야 함
 - 교육·컨설팅은 전문 컨설팅 인증업체를 통해 일괄 추진하여야 함
- ③ 본 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타 보조금 또는 지방비 부담금이 재원인 교육·컨설팅 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시설·장비 지원



공동영농조직(공동영농작업단)을 구성하여 논 타작물 재배 및 발작물과의 연계를 위한 작부체계 전환 등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트랙터, 콤바인, 파종기, 드론 방제기 등)의 구입을 지원하여 경영체가 공동영농을 통해 회원농가의 확대 및 생산비 절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비] 논 타작물 및 동계 조식작물 재배, 발작물과의 연계 등 경영체의 작부체계 특성에 따라 타작물 파종기 및 수확기, 조식작물(건초) 생산장비, 간이선별기, 색채선별기 등을 지원합니다.

[시설] 공동육묘장(논콩)의 경우 사업다각화 지원의 건축물 기준 준용합니다.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 계획수립 시 유의사항

[방향] 농지 이용의 다양화·전문 단지화(논 타작물 전환, 발작물 연계, 기능성 특수미, 가공용 등), 생산된 식량작물을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사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

- 규모화로 발생한 농지·인력 등의 유희자원과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쌀 중심의 소득구조를 다원화하고 참여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방식] 타작물 재배 및 발작물 연계, 타 산업 분야 확대를 중심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기존 쌀 중심의 규모화 계획 수립은 최소화

- 사업다각화는 크게 타작물 재배, 발작물 연계, 이모작 확대, 생산 농산물 가공·유통, 체험·관광 연계 부문으로 나누어 계획 수립

- ① 타작물 재배, 발작물 연계, 조사료 및 이모작 확대, 6차산업화를 위한 가공·유통 설비 및 건축물은 총사업비 내에서 별도 한도 없이 수립 가능
 - 발작물 연계 및 논 타작물 재배를 통한 잡곡 및 맥류, 조사료, 찰벼, 유색미 등을 활용한 6차 산업화 포함
 - 단순가공 이외 제분·제면·라면·빵·떡·한과·주류 제조, TMR 등 가공사업도 포함
- ②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시설은 취급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해당 취급품목 수급상황에 따라 조기 출하 또는 출하 연기 등 정부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만일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후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음)
- ③ 건축물 신축·리모델링 시 체험·교육·전시·홍보관은 총 사업비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하며, 숙박시설 및 축사는 제외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숙박시설은 필요 시 지역숙박업체 등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
- ④ 쌀 관련 생산·유통기반 구축은 기존 시설·장비 지원, 쌀 적정 생산 및 RPC 중심의 통합·규모화를 고려하여 총사업비의 최대 30% 한도에서 수립
 - 일반 벼 건조·저장, 도정을 위한 시설·장비는 제외하여야 함
- ⑤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은 각각 총사업비의 최소 5% ~ 최대 10% 한도 수립
 - 다각화에 수반되는 전문 교육·컨설팅과 공동영농 및 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포함하여 수립. 단,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 부분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에 준해 실시하여야 함
 - 출자·배당·적립, 공동정산 등 회계, 공동경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위한 회계·법무법인 자문계획 포함 수립
 - 참여농가의 소속감 부여, 온라인 직거래 등 공동마케팅을 위한 식량작물공동(특)경영체별 브랜드, BI, 상품 포장지 등 개발에 필요한 컨설팅 계획 포함 수립
 - 홍보, 회계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등 계획 포함 수립
 - 본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자체 교육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⑥ 인건비, 유류비, 종자대 등 운영비는 제외하여야 함



전국 전략작물(두류 등)

공동경영체 현황

전국의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논콩 전문생산단지는 2024년 기준 누계 184개 경영체, 재배면적 13,126ha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북권역[89개소]

NO.	시도	시군	경영체명	선정년도	품목
1	전북	고창	한결	2020	콩
2	전북	군산	임피위탁(주)	2020	콩
3	전북	군산	하나로	2020	콩
4	전북	김제	건강쌀연구회영농	2020	콩
5	전북	김제	담덕영농	2020	콩
6	전북	김제	대영영농	2020	콩
7	전북	김제	새누리영농	2020	콩
8	전북	김제	우리미영농	2020	콩
9	전북	김제	석산한우	2020	콩
10	전북	김제	양지영농	2020	콩
11	전북	김제	에쿠스	2020	콩
12	전북	김제	월촌	2020	콩
13	전북	김제	광원	2020	콩
14	전북	김제	덕성농축산업	2020	콩
15	전북	김제	진봉농협	2020	콩
16	전북	김제	죽산콩영농	2020	콩
17	전북	김제	한마음영농	2020	콩
18	전북	부안	행안콩영농	2020	콩

NO.	시도	시군	경영체명	선정년도	품목
19	전북	부안	흙부리영농	2020	콩
20	전북	부안	계화농협	2020	콩
21	전북	부안	하서농협	2020	콩
22	전북	부안	아그로포레스트	2020	콩
23	전북	순창	도담(주)	2020	콩
24	전북	익산	망성위탁	2020	콩
25	전북	전주	국산콩	2020	콩
26	전북	전주	범일위탁	2020	콩
27	전북	정읍	영원	2020	콩
28	전북	정읍	신화	2020	콩
29	전북	부안	뜨락영농	2021	콩
30	전북	부안	하나로영농	2021	콩
31	전북	부안	현보영농	2021	콩
32	전북	부안	하이영농	2021	콩
33	전북	순창	서순창농협	2021	콩
34	전북	순창	쌍치삼암영농	2021	콩
35	전북	정읍	녹두한우영농	2021	콩
36	전북	정읍	샘골농협	2021	콩
37	전북	군산	(유)농사짓는 오빠들	2021	콩
38	전북	군산	개정위탁영농	2021	콩
39	전북	군산	고군산친환경영농	2021	콩
40	전북	군산	생금들친환경영농	2021	콩
41	전북	군산	수빈농장영농	2021	콩
42	전북	김제	등불영농	2021	콩
43	전북	김제	마포영농	2021	콩
44	전북	김제	무지개영농	2021	콩
45	전북	김제	햇불영농	2021	콩



전국 전략작물(두류 등) 공동경영체 현황

전북권역[89개소]

NO.	시도	시군	경영체명	선정년도	품목
46	전북	김제	현대영농	2021	콩
47	전북	김제	홍산아리랑영농	2021	콩
48	전북	익산	용인영농	2021	콩
49	전북	익산	송산미영농	2021	콩
50	전북	익산	채움영농	2021	콩
51	전북	익산	춘포참살이영농	2021	콩
52	전북	고창	흙이좋아영농	2022	콩
53	전북	고창	중우축산영농	2022	콩
54	전북	김제	미우미피해영농	2022	콩
55	전북	김제	장귀영농	2022	콩
56	전북	김제	심포농업법인	2022	콩
57	전북	김제	부량콩영농	2022	콩
58	전북	부안	당그레영농	2022	콩
59	전북	익산	두드림영농	2022	콩
60	전북	군산	옥구농협	2023	콩
61	전북	고창	유성영농법인	2023	콩
62	전북	김제	가야농축산영농법인	2023	콩
63	전북	김제	서도영농법인	2023	콩
64	전북	김제	백산농협	2023	콩
65	전북	김제	이택영농조합법인	2023	콩
66	전북	김제	초록나래도작영농조합법인	2023	콩
67	전북	부안	한국농축산프렌즈	2023	콩
68	전북	부안	애농영농조합법인	2023	콩

NO.	시도	시군	경영체명	선정년도	품목
69	전북	부안	대백산영농조합법인	2023	콩
70	전북	익산	부리깊은영농법인	2023	콩
71	전북	익산	오가닉팜영농법인	2023	콩
72	전북	익산	용연영농법인	2023	콩
73	전북	익산	신용안영농법인	2023	콩
74	전북	익산	강한영농법인	2023	콩
75	전북	정읍	한솔축산영농법인	2023	콩
76	전북	정읍	하이마블영농법인	2023	콩
77	전북	고창	화목농장	2024	콩
78	전북	군산	농업법인(유)진남농부	2024	콩
79	전북	김제	결두리영농	2024	콩
80	전북	김제	한백영농	2024	콩
81	전북	김제	효정아리울영농	2024	콩
82	전북	김제	김제원협	2024	콩
83	전북	순창	베리앤단비영농	2024	콩
84	전북	순창	추령청년들영농	2024	콩
85	전북	익산	신광영농	2024	콩
86	전북	정읍	남미영농	2024	콩
87	전북	정읍	농업법인주소울	2024	콩
88	전북	정읍	농업법인청포	2024	콩
89	전북	정읍	이삭들녘영농	2024	콩



전국 전략작물(두류 등) 공동경영체 현황

전남권역 [55개소]

NO.	시도	시군	경영체명	선정년도	품목
1	전남	강진	참조은영농	2020	콩
2	전남	나주	알곡	2020	콩
3	전남	영암	영암에이스영농	2020	콩
4	전남	장성	황룡위탁영농	2020	콩
5	전남	장흥	금곡	2020	콩
6	전남	진도	친환경영농	2020	콩
7	전남	해남	산막영농	2020	콩
8	전남	곡성	옥과농협	2021	콩
9	전남	무안	(주)임석들	2021	콩
10	전남	영광	행복이가득한드림	2021	콩
11	전남	영암	군서농협	2021	콩
12	전남	장성	하누리영농	2021	콩
13	전남	해남	미래영농	2021	콩
14	전남	해남	산호영농	2021	콩
15	전남	해남	서해남영농	2021	콩
16	전남	해남	현산농협	2021	콩
17	전남	해남	가온누리영농	2021	콩
18	전남	화순	황금햇살(주)	2021	콩
19	전남	강진	농업회사법인 진양(주)	2022	콩
20	전남	강진	웰그린영농	2022	콩
21	전남	고흥	대룡영농	2022	콩
22	전남	나주	봉황농협	2022	콩
23	전남	무안	농업회사법인 서호(유)	2022	콩
24	전남	무안	다한영농	2022	콩
25	전남	보성	득량만영농	2022	콩
26	전남	보성	초지한우	2022	콩
27	전남	순천	낙안형제영농	2022	콩
28	전남	신안	시골아재영농	2022	콩

NO.	시도	시군	경영체명	선정년도	품목
29	전남	영광	지내들영농	2022	콩
30	전남	장흥	녹원정미소영농	2022	콩
31	전남	화순	능주농협	2022	콩
32	전남	화순	천운농협	2022	콩
33	전남	해남	담아	2022	콩
34	전남	해남	혜은농장영농	2022	콩
35	전남	강진	착한영농법인	2023	콩
36	전남	무안	(주)부부영농법인	2023	콩
37	전남	무안	우리축산영농법인	2023	콩
38	전남	신안	쌀맛나는영농법인	2023	콩
39	전남	영광	칠산영농법인	2023	콩
40	전남	영광	팜라이프영농법인	2023	콩
41	전남	영암	하모니영농법인	2023	콩
42	전남	함평	진례금송영농법인	2023	콩
43	전남	고흥	착한친환경영농조합법인	2023	콩
44	전남	보성	조성농업회사법인	2023	콩
45	전남	담양	농업회사법인(주)정금	2023	콩
46	전남	곡성	곡성자연농업영농조합법인	2023	콩
47	전남	강진	평산영농	2024	콩
48	전남	곡성	종방푸른들영농	2024	콩
49	전남	영광	대아영농	2024	콩
50	전남	장흥	농업법인삼영(주)	2024	콩
51	전남	장흥	다사랑영농	2024	콩
52	전남	장흥	진목영농	2024	콩
53	전남	해남	방아들영농	2024	콩
54	전남	해남	풍년유통영농	2024	콩
55	전남	화순	길상한우영농	2024	콩



전국 전략작물(두류 등) 공동경영체 현황

그 외 권역 [40개소]

NO.	시도	시군	경영체명	선정년도	품목
1	광주	북구	들풀(주)	2020	콩
2	경기	파주	북파주농협	2020	콩
3	충남	보령	남포농협	2020	콩
4	충남	서천	벼농사를이야기	2020	콩
5	충남	예산	사리영농	2020	콩
6	경북	경주	신경주농협	2020	콩
7	경북	상주	나누리	2020	콩
8	경북	예천	한국예코팜	2020	콩
9	경남	사천	콩사랑	2020	콩
10	충북	괴산	(주)뜨란	2021	콩
11	충남	논산	예담영농	2021	콩
12	충남	당진	해나루영농	2021	콩
13	충남	보령	남포농업경영인영농	2021	콩
14	충남	홍성	대한경기영농	2021	콩
15	경기	이천	모가영농	2022	콩
16	강원	영월	승당농산물가공영농조	2022	콩
17	충남	논산	황산벌영농조합법인	2022	콩
18	충남	논산	부적농협	2022	콩
19	충남	서천	아름드리친환경영농	2022	콩
20	경북	경주	광원영농	2022	콩
21	경북	구미	무을농협	2022	콩
22	경북	김천	우리들농장	2022	콩
23	경북	문경	흙무지영농	2022	콩



전국 전략작물(두류 등) 공동경영체 현황

그 외 권역 [40개소]

NO.	시도	시군	경영체명	선정년도	품목
24	경북	문경	서문경농협	2022	콩
25	경북	상주	함창농협	2022	콩
26	경북	안동	서안동농협	2022	콩
27	경남	의령	운암영농	2022	콩
28	경남	합천	청원영농	2022	콩
29	충남	부여	여울영농법인	2023	콩
30	충남	부여	한울친환경영농조합법인	2023	콩
31	경북	구미	샘물영농법인	2023	콩
32	경북	경주	방어리영농법인	2023	콩
33	경북	경주	케이디디영농조합법인	2023	콩
34	경북	경주	지초영농조합법인	2023	콩
35	경남	합천	해와인콩합자회사	2023	콩
36	경남	함안	팔도영농조합법인	2023	콩
37	경북	안동	안동농협	2023	콩
38	충남	부여	백제고을영농	2024	콩
39	충남	부여	부여농부영농	2024	콩
40	경북	안동	농업법인(주)여기	2024	콩



전국 식량작물공동경영체 현황 지도 배치



경기 2개단지

북파주농협 / 모가영농



충청남도 14개단지

남포농협 / 벼농사를이야기 / 사리영농 / 예담영농 / 해나루영농 / 남포농업경영인영농
대한경기영농 / 황산벌영농조합법인 / 부적농협 / 아람드리친환경영농 / 여울영농법인
한울친환경영농조합법인 / 백제고을영농 / 부여농부영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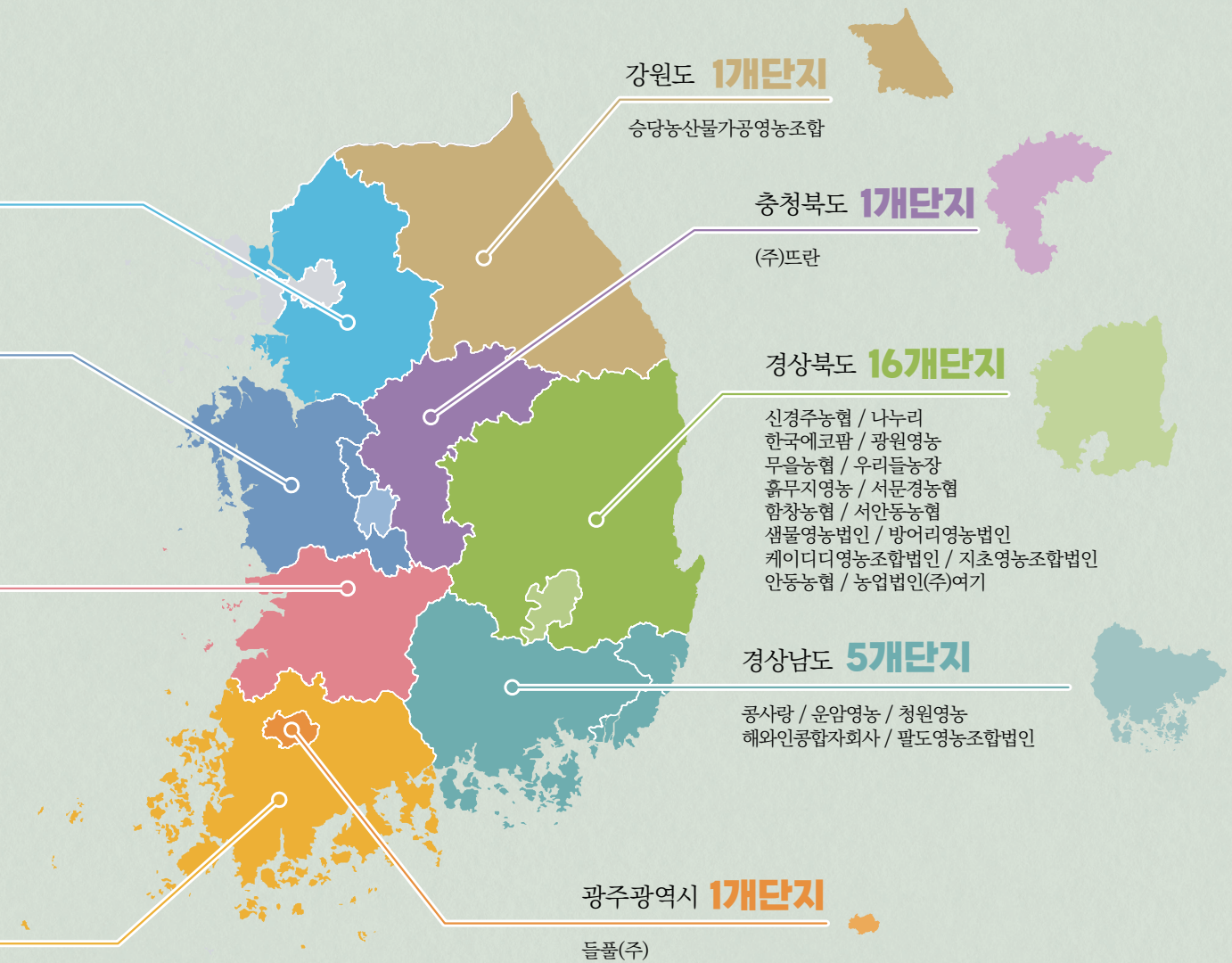
전라북도 89개단지

한결 / 임피위탁(주) / 하나로 / 건강쌀연구회영농 / 담덕영농 / 대영영농 / 새누리영농 / 우리미영농 / 석산한우
양지영농 / 에쿠스 / 월촌 / 광원 / 덕성농축산업 / 진봉농협 / 죽산공영농 / 한마음영농 / 행안공영농 / 흙뿌리영농
계화농협 / 하서농협 / 아그로포레스트 / 도담(주) / 망성위탁 / 국산콩 / 범일위탁 / 영원 / 신화 / 프락영농 / 하나로영농
현보영농 / 하이영농 / 서순창농협 / 쌍지삼암영농 / 녹두한우영농 / 샘골농협 / (유)농사짓는오빠들 / 개정위탁영농
고군산친환경영농 / 생금들친환경영농 / 수빈농장영농 / 등불영농 / 마포영농 / 무지개영농 / 햇불영농 / 현대영농
홍산아이랑영농 / 용인영농 / 송산미영농 / 채읍영농 / 춘포참살이영농 / 흙이좋아영농 / 중우축산영농 / 미우미피해영농
장귀영농 / 심포농업법인 / 부량공영농 / 당그레영농 / 두드림영농 / 옥구농협 / 유성영농법인 / 가야농축산영농법인
서도영농법인 / 백산농협 / 이택영농조합법인 / 초록나래도작영농조합법인 / 한국농축산프렌즈 / 애농영농조합법인
대백산영농조합법인 / 뿌리깊은영농법인 / 오가닉팜영농법인 / 용연영농법인 / 신용안영농법인 / 강한영농법인
한솔축산영농법인 / 하이마블영농법인 / 화목농장 / 농업법인(유)진남농부 / 결두리영농 / 한백영농 / 효정아리울영농
김제원협 / 베리앤단비영농 / 추령청년들영농 / 신평영농 / 남미영농 / 농업법인주소울 / 농업법인청포 / 이삭들녘영농



전라남도 55개단지

참조은영농 / 악곡 / 영암에이스영농 / 황룡위탁영농 / 금곡
친환경영농 / 산막영농 / 옥과농협 / (주)임석들 / 행복이가득한드림
군서농협 / 하누리영농 / 미래영농 / 산호영농 / 서해남영농
현산농협 / 가온누리영농 / 황금햇살(주) / 농업회사법인진양(주)
웰그린영농 / 대룡영농 / 봉향농협 / 농업회사법인서호(유) / 다한영농
득량만 영농 / 초지한우 / 낙안형제영농 / 시골아재영농 / 지내들영농
녹원미소영농 / 능주농협 / 천운농협 / 담아 / 혜은농장영농 / 착한영농법인
(주)부부영농법인 / 우리축산영농법인 / 쌀맛나는영농법인 / 칠산영농법인
팜라이스영농법인 / 하모니영농법인 / 진례금송영농법인
착한친환경영농조합법인 / 조성농업회사법인 / 농업회사법인(주)정금
곡성자연농업영농조합법인 / 평산영농 / 종방푸른들영농 / 대아영농
농업법인삼영(주) / 다사랑영농 / 진목영농 / 방아들영농 / 풍년유동영농
길상한우영농





제4회 국산콩 우수생산단지 선발대회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는 2021년에 처음 시작하여 올해로 4회차를 맞이하고 있는 대회로 전국에 위치한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및 콩 재배단지(농업법인, 농협 등)이 각각의 경영체에서 콩 생산량 증대, 콩 생산, 유통 등의 확대, 공동영농을 통한 조직 결속력 강화 등의 평가를 통해 우수한 콩 생산단지를 선발하는 대회입니다.

선발대회 목적

국산콩 우수생산단지로 선정된 단체 및 단지의 공동영농 및 다수확 생산기술 등 운영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여 전국의 콩 생산단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수생산단지의 전문성 강화 유도

우수생산단지로 선정된 단체를 벤치마킹 모델로 적극 홍보하여 전국적으로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의 전문성(생산기술, 공동영농 확대 등)의 강화와 조직화 역량(생산 기술력 향상, 생산단수 증대, 생산비 절감 등)의 강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① 시·도에서 추천한 우수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심사평가를 통해 선정

선정 및 시상

구분	수상	상금
대상 (장관상)	1업체	10백만원
우수상 (농진청장상)	1업체	5백만원
장려상 (농진청장상)	2업체	3백만원
특별상 (aT사장상)	2업체	2백만원
다수확상	1업체	

명예의 전당

동일 경영체가 대상 1회(필수) 포함 우수상·장려상 등 수상 구분없이 (특별상 제외) 수상경력이 "3년 연속" 이상일 경우 평가 결과 입상범위라도 시상 선정하지 않고, "명예의 전당" 현판 제공

※ 단, 3년 이상 수상 후 3년간 대회 참여 제한 / 4년차에 재참여 가능.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협조

농진청, 시·도, 시·군, 농협경제제주

신청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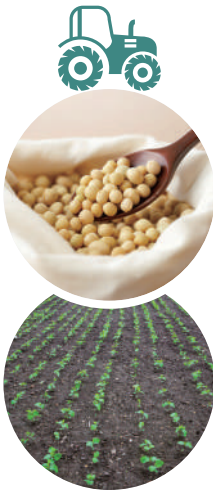
정부지원 논콩 전문생산단지(184개소), 공동영농면적이 10ha 이상이면서 콩 재배면적이 5ha 이상인 운영주체(농업법인·농협)

평가방법

시·도 자체평가, 농식품부 전문 평가단 평가(현장·종합평가)

평가항목

구분	점수
단지운영	30점
다수확 안정 생산체계	40점
수확 후 관리역량	20점
종합평가	10점
가점	10점
총점	100점

**② 신청대상 및 품목****신청대상**

정부지원 논콩 전문생산단지(184개소), 공동영농면적이 10ha 이상이면서 콩 재배면적이 5ha 이상인 운영주체(농업법인·농협)

신청품목

콩 (백태, 콩나물콩 포함) * 검정콩 제외 * '단위 면적당 생산량' 평가 항목에만 적용

③ 평가대상 기간(1년)

'23. 10월 ~ '24.9월 까지의 추진 실적(1년)

④ 평가방법 및 역할 분담

시·도 자체 평가 후 농식품부(aT)에서 전문 평가단 구성 평가

- (시·도 자체평가) 선발대회 신청 경영체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자체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식품부 제출(‘단위 면적당 생산량’ 평가지표는 평가 미실시 가능)
- (농식품부 종합평가) 시·도에서 추천한 우수 생산단지를 전문심사 평가단을 구성*(aT)하여 현장평가와 종합평가 진행

* 산·학·연 관련 전문가를 5개팀(각 팀당 2인 이내)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

기관별 역할 분담

- (농식품부) 선발대회 주최, 선발대회 계획 수립 및 홍보
- (aT) 선발대회 주관, 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 (평가팀 구성, 평가)
- (시·도) 신청 경영체 자체평가 실시 및 추천 (우선순위 부여)

⑤ 신청(심사) 절차

(신청·심사 절차) 시·도를 통해 추천된 경영체를 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현장·종합평가)한 후 우수생산단지로 선정

1

참가신청 (경영체)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경영체는
관할 시·군으로 신청

2

경영체 추천 (시·군)

신청 경영체 평가
자료 서류 검토·보완
및 시·도 추천

3

자체평가 및 추천 (시·도 → 농식품부·aT)

시·군에서 추천한 대상
자를 취합 시·도 자체
평가를 진행 후
농식품부 식량산업과
(aT)로 추천

4

현장평가 (aT)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경영체는
관할 시·군으로 신청

5

종합평가 (aT, 농식품부)

신청 경영체 평가
자료 서류 검토·보완
및 시·도 추천



* 시·도(시·군)를 통하여 신청하지 않은 경영체는 참여할 수 없음

⑥ 제출 서류 및 증빙 목록

각각의 파일은 개별 스캔하여 번호 목록 순으로 제출합니다.

* 아래 표에 명시된 “번호 및 증빙서류 명칭”을 파일명으로 하여 개별 파일로 제출합니다
(1개의 스캔 파일 불가).

- 예시 : 4_조합원명부.PDF, 18_농가수익환원실적.PDF

구분	제출서류 및 증빙항목	
기본서류	(1) 신청서 (별지 서식1)	(2) 평가 세부자료 (별지 서식 2)
단지운영	(3) 등기부등본	(4) 조합원명부 (출자자명, 출자액)
	(5) 내부규약	(6) 총회 또는 회의록
	(7) 경영일지(수입/지출 명기)	(8) 영농일지 (공동농작업 위주)
	(9) 교육 이수증	(10) 자체 교육 결과보고서
다수확 안정 생산체계	(11) 참여농가명부 및 필지현황	(12) 생산매뉴얼
	(13) 제재사항 증빙(계약서, 약정서, 규약, 생산매뉴얼 등에 명시 된 경우 해당증빙 대체)	(14) 인센티브 증빙(계약서, 약정서, 규약, 생산매뉴얼 등에 명시된 경우 해당 증빙 대체)
	(15) 재해보험가입 증빙	
수확 후 관리역량	(16) 연계 SPC 출하증빙 (약정체결 MOU 등)	(17) 출하내역서 증빙 (매출증빙, 거래내역서 등 출하처 / 물량 명기)
	(18) 농가수익환원실적 (재투자, 교육, 배당 등 최근 1년이 내 실적)	
	*농협의 경우, 농자재 지원 등 콩 생산농가에 대한 차별적 지원인 경우에만 적용 (일반 조합원 환원사업은 제외)	
4. 가정 항목	(19) GAP인증서(콩 생산 필지)	(20) 친환경인증서 (콩 생산 필지)
	(21) 단지 위성사진 등	(22) 우수사례 기술서

※ '24년 선별대회 신규참여 생산단지 중 “1.단지운영/◦ 전년대비 경영규모 확대” 항목 실적이 있는 경우, 전년('23.10월~'24.9월) 기준 “(4)조합원명부”, “(11)참여농가명부 및 필지현황” 증빙 제출



⑦ 국산콩 우수생산단지 선발 심사표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계	계량	비계량	
단지운영 (30점)	5	3	2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내부 운영위원회·협의회 운영(최근 1년)
	5	3	2	· 경영·영농일지 작성(최근 1년)
	7	7	-	· 교육·훈련 실적(최근 2년)
	8	5	3	· 공동영농 발전정도
	5	5	-	· 전년대비 경영규모 확대
다수확 안정 생산체계 (40점)	6	3	3	·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최근 1년)
	30	30	-	· 단위 면적당(5개 필지 중 1개 선택) 생산량('23년)
	4	4	-	· 자연재해 대비('23년)
수확 후 관리 역량 (20점)	7	5	2	· 콩종합처리장(SPC) 보유·연계 및 정선 출하('23년)
	6	3	3	· 안정적 판로처 확보(최근 1년)
	7	5	2	· 농가 수익 환원(최근 1년)
가점 (10점)	10	6	4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할 경우(1~4번 각 1.5점, 5번 4점, 최근 1년) ① 시·군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승인) ② GAP 생산단지 지정(콩 재배면적의 30% 이상) ③ 친환경인증(콩 재배면적의 30% 이상) ④ 공동경영면적의 집단화도(2개 이하 단지로 구성) ⑤ 우수사례(외부 전파사례, 지력증진 목적 윤작재배, 증산농법, 비 계량 등)
종합평가	10	-	10	· 콩 우수 생산단지로서의 여건 등 종합 평가
합계	100	74	26	

㉔ 신청경영체 사전 준비사항

구분	내용
계측필지 확인	- 신청 경영체와 필지 소유주 관계 확인(조합원 여부 등) - 현장 구비서류 : 계측필지 농업경영등록체확인서, 지적도
수확·측정장비 확인	- 필요장비 : 콤바인(2조식 또는 4조식), 곡물 수분측정기, 간이 정선선별기, 톤백(수확용)·30kg(계측용) 마대, 전자저울 등 * 장비 미보유시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 미리 대여 - 간이 정선선별기 :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한 선별기 중 최신 기종 우선 사용 권장(지자체 협조 필요) - 콤바인·선별기 내부 콩 잔재물을 깨끗하게 제거
보조인력 준비	- 콤바인 운전 등 현장에 필요한 인력(2인 이상) 준비

※ 사전 준비사항 미흡으로 인한 평가결과의 책임은 신청 지자체 및 경영체에 있음



우수사례





대상 (전남 영암 군서농업협동조합)	02
우수상 (경기 이천 모가영농조합법인)	05
장려상 (전남 화순 천운농업협동조합)	07
장려상 (경남 사천 공사랑영농조합법인)	
특별상 (전북 부안 하이영농조합법인)	
특별상 (경북 상주 나누리영농조합법인)	
다수확상 (전북 진안 농업회사법인(유)문스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전남 영암 군서농업협동조합



농협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기술지도
및 지원



영농작업별 전문인력 활용
및 전용기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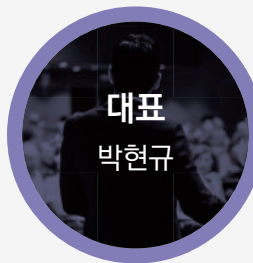
공동영농 활성화 및
회원농가의 영농작업
적기 추진



재배면적 124.5% 증가
(65ha→76ha)



생산단수
416.8kg/10a



대표
박현규



소재지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도갑사로7



농가수
117농가

· 군서농업협동조합 기본 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재배면적	76.1ha * 논콩면적 : ('22) 29.1ha → ('23) 65.1ha → ('24) 76.1ha
재배품종	선품
생산단수(10a당)	('22) 300kg → ('23) 436kg → ('24 kg) 416.8kg
작부체계	1모작(논콩) + 2모작(유채, 자운영,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매계약	자체매수
보유 농기계	트랙터 2, 콤바인 5, 정전기2, 광역방제기 2



농협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공동영농 확대

제 4회 우수콩 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대상(장관상)을 수상한 전라남도 영암군에 위치한 군서농업협동조합은 농협과 조합원 그리고 영암군의 적극적인 교육훈련 및 생산기술 지도, 자문 등을 통해 영암지역의 우수콩 생산단지로 거듭나고 있다.

군서농협이 처음 논콩 재배생산단지를 운영할 때의 회원농가는 15농가, 22ha의 면적에서 시작하였다. 군서농협 콩 전문생산단지는 논콩 전문(유통) 시설 및 생산장비가 부족하였고, 영암군의 지역 농업인은 쌀농사가 우선한다는 의식이 강한 지역이었다.





전남 영암군 군서면의 농지는 논 면적이 2천여ha로 주로 벼농사 중심의 농업을 하였으나, 쌀의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쌀값이 하락하였고 농업경쟁력이 약화되어 농가의 소득이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군서농협은 벼농사를 중점으로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논콩 생산단지로의 작목 전환을 통한 소득을 안정화하고자 식량작물공동경영체(들넉)육성사업을 신청하여 논콩 전문생산단지로서의 생산자조직 구성, 집단화, 규모화와 공동영농의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군서농협과 영암군에서는 쌀생산조정제 시행과 논타작물 직불금제도의 변화를 기점으로 지역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논타작물 전환사업에 따른 소득작물을 변화하고자 논콩 전문생산단지 구축하였고, 군서농협을 중심으로 채종포단지를 조성하여 논콩 재배를 희망하는 회원농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논콩 재배단지 구축을 시작하였다.





시범단지 운영을 통한 성공적인 재배단지 조성

영암군과 군서농협은 2019년도에 논 타작물 재배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논콩 시범재배를 시행하였다. 2020년에는 15ha를 타 작물 재배단지로 조성하였다. 그 후, 농업 순이익 200평당 50만 원 및 경관작물 소득지원 200평당 60만 원의 농가소득을 농협에서 보장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 추진 결과, 회원농가의 호응도가 높았다. 2021년도 22ha에서 시작한 논콩 재배면적은 점차 증가하여 22년(29ha)→23년(65ha)→24년(76ha)로 확대되었다. 또한, 생산단지의 경운, 파종, 잡초방제, 병해충방제, 수확까지 일련의 과정을 일괄 대행하여 공동영농·계산하였고, 회원농가에 수익금을 배분하였다.





공동영농 활성화 및 회원농가의 영농작업 적기 지원

군서농협은 공동영농의 확대 운영을 위해 트랙터, 파종기, 방제기(드론 등), 콤바인 등의 영농작업 장비를 확보했다. 각 논콩 생산장비를 쓸 수 있는 전문 인력도 배정하였다.

군서농협은 공동영농작업단의 주도하에 논콩 전문단지의 영농작업 일정을 회원농가(조합원)에게 알렸다. 각 영농작업의 적정 일자를 고려하여 생산단지의 작업 일정을 조율하였다.

군서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생산장비를 주로 활용하되, 트랙터, 파종기 등 중요한 장비는 농업기술센터의 장비를 임대하여 공동영농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영농작업 일정은 장비 및 인력의 이동, 작업 시간 등의 효율성을 따져, 회원농가의 영농 일정에 맞추도록 노력하였다. 일정이 중복되면 회원농가와 조율하여 영농 시기가 지나지 않도록 조정함으로써 공동영농의 공정성을 확립하였다.





공동영농 활성화에 따른 효과

군서농협은 군서면 소재 필지를 대단위로 집적, 규모화하여 공동영농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작업 일정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었고, 경운, 파종, 비료 살포 등의 농작업을 위한 이동 시간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일당 작업 면적이 늘어나 농업에 투입되는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 계약재배를 통해 단일 품종(선품)으로 품질의 안정화를 이루었다. 논콩 재배시기별 관리 방법을 통일하기도 했다.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최종 수확 단계에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통해 충분한 준비 시간을 두어 회원의 참여도를 높였다.

또한 공동영농작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작업 일정을 조율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회원을 대상으로 다수확 안정 생산 교육 및 농작업 우수선도농가 견학 등을 추진하였다. 회원의 가시적인 농가소득 증대가능성을 제시하여 생산면적과 참여농가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동계 경관작물(유채) 재배로 토양 환원 및 논콩 재배단지 지력 증진



영암군은 2019년부터 지역 내 유채경관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였다. 비어 있는 농지에 겨울철 경관 작물인 유채를 심어 지력 증진을 꾀하는 한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자원을 확보하였다. 또한 경관작물 소득지원으로 200평당 60만 원의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군서농협은 유채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토양의 지력을 높이는 효과를 홍보하였다. 논콩 수확 이후 겨울에 유채를 파종하여 경관사업을 하고, 유채 수확기에 토양과 함께 유채를 경운하여 대체 비료로 활용해 토양의 지력을 높였다.

이와 함께, 토양 검사를 시행하여 부족한 비료 성분은 우분퇴비(2.5톤/10a) 및 유기질비료를 부려 생산단지 토양의 활력을 높였다. 또 2년 단위로 석회질 비료를 시비하여 토양의 건강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논콩 전문 생산단지 확대로 논 타작물 활성화 및 농가소득의 표본 제시

군서농협의 향후 계획은 논콩 재배단지의 면적을 100ha까지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서면 인근 콩 재배농가에게 마을 단위 공동영농이 될 수 있도록 논콩 생산단지 조성을 지도한다. 또 논콩 재배기술 교육 등을 수시로 운영하여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앞으로 군서농협은 논콩 생산단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농가소득 향상과 안정화의 표본이 될 수 있는 논콩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장상

경기 이천 모가영농조합법인



청년 농업인 중심의
공동영농확대



다수확 재배 기술 공유



축분 퇴비 환원으로
지력 증진



논콩 재배경험·역량 풍부



단지운영, 수량성, 수확 후
관리역량 강화



생산에서 선별,
유통까지 시설 역량확보

대표

이상진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1351-8

농가수

39농가

* 회원농가 : ('22) 20농가 → ('23) 39농가 → ('24) 76.1ha

· 모기영농조합법인 기본 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재배면적	53ha * 논콩면적 : ('22) 37ha → ('23) 52ha → ('24) 53ha
재매품종	선품
생산단수(10a당)	('22) 300kg → ('23) 436kg → ('24) 416.8kg
작부체계	1모작(논콩) + 2모작(유채, 자운영,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매계약	자체매수
보유 농기계	트랙터 2, 콤바인 5, 정선기2, 광역방제기 2
보유 시설·장비	콩 종합처리장 (선별기 능력 2.5톤/h, 지게차2, 이송트럭1)



쌀의 절대 강자 지역에서 이뤄낸 논콩 전문생산단지



제 4회 우수콩 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한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모기영농조합법인은 논에서 쌀 이외의 작물은 어렵다는 편견을 지워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 국산콩 우수생산단지 선발대회를 통해 이천지역에서 논콩 전문생산단지로 우뚝서게 되었다.

이천지역은 대대로 비옥한 토양과 큰 일교차, 일조량이 많은 기후여건과 청정한 물이 있어 대표적인 쌀 생산지역이었다. 임금님 밥상에도 올라갈 정도로 유명한 이천쌀은 현재도 최고의 쌀로 인정받고 있을 정도로 이 지역의 쌀 생산자들의 자부심이 매우 높은 지역이었다.



하지만, 쌀 과잉 생산 문제로 쌀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쌀값이 매년 변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모가영농조합법인은 타 작물로의 전환을 통해 소득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8년부터 처음으로 논에서 콩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1.65ha(5,000평)로 시작한 법인은 지금은 경기도 이천의 유일한 '논콩 재배단지'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현재는 39농가 회원들이 53ha의 면적에서 논콩을 재배할 정도로 규모를 키웠다.

법인이 운영 중인 논콩 재배단지의 장점은 기본에 충실하다는 점이다. 법인대표부터 모든 회원이 교육컨설팅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기초 교육은 물론, 논콩 선진지 농가와 생산단지를 견학하며 재배기술, 공동영농조직 운영 및 회원 관리 등의 경험을 습득한다. 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배단지 운영의 발판이 된다.

여기에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 등으로 콩 생육에 피해가 올 것을 예상하고, 법인만의 배수정비팀을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 세부적인 일지를 기록하며 법인의 경쟁력을 높이기도 했다.

법인 대표는 “회원농가들이 크게 욕심내지 않고 기본 매뉴얼을 지키며 꾸준히 생산단지를 관리해 나간 것이 논콩 재배 생산의 가장 기본이라 생각하며, 무엇보다 상황에 맞게 시설이나 장비 등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경쟁력을 다진 것이 오늘의 결과가 있게 한 주요한 원인”이라 강조하였다.





청년 농업인의 의기투합으로 논콩 전문 생산단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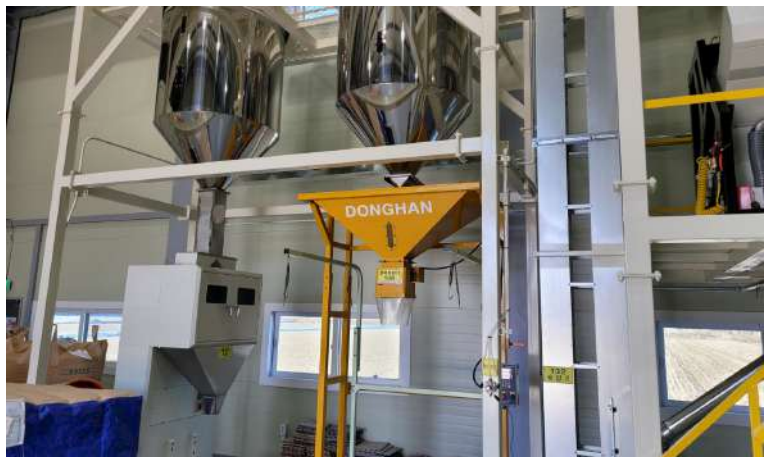
본 법인은 2~30대의 젊은 지역 청년들이 의기투합하여 경기도 이천, 여주, 용인을 중심으로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영농법인이다. 이 법인에는 주로 한국농수산업대학교 졸업생과 영농후계자들이 모여 있다. 벼농사에 집중된 생산 품목을 변화시키고 신규 소득 작물의 전환을 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본 법인의 젊은 농업인들은 회원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논콩 생산작업에 필요한 장비(트랙터, 방제기, 드론, 파종기 등)와 작업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조율하여 회원농가의 생산량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본 법인은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의 교육컨설팅과 시설장비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영농장비와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단지의 규모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영농장비를 갖추어 안정적인 생산 능력도 확보하였다. 우수생산기술 보급 등을 통해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수확한 콩을 일괄 정선·선별하는 등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게다가 법인을 중심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모여 논콩 생산뿐만 아니라 벼, 밀, 조식료 등의 생산을 지원, 협력하여 법인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철저한 생산단지 관리와 생산기술 교육 등을 통해 우수한 콩 생산단지로 거듭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활동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 지역 어르신들의 우수한 평판을 끌어내고 있다. 고령 농업인들로부터 재배필자를 임대받기도 하고, 고령 농업인을 참여 회원으로 유입하여 생산기술 및 경험을 전수받는 한편 고품질, 다수확 생산기술을 전파하기도 한다.





영농장비의 확보 및 조직개편을 통한 공동영농작업단의 운영능력 강화

법인은 회원과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하여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논콩 생산장비를 확보하였다. 기존에는 작업별 2~3명으로 구성하던 공동영농작업단을 이천, 용인, 여주 각 지역별로 나누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단지장(운영진)을 선정했다. 그리고 단지장의 주도하에 영농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도록 해 작기별 생산비를 절감하였다.

본 법인은 매년 총회를 개최하여 당해연도 콩 계약재배와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회의를 거쳤다. 이 총회에서 품종의 선정 및 구입, 자재의 공동 구매 등의 의사를 결정했다. 또한 회원에게 정보를 공유하여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법인은 회원농가의 다수확 논콩 재배기술 확보 및 정보 교류를 위해 회원농가들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의 논콩 생산자 전문기술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농식품부의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사업(교육·컨설팅)으로 회원농가의 안정적인 콩 생산 및 가공유통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것이다.



법인은 교육 과정과 현장 지도 컨설팅을 통해 평균 생산량 증가(275kg/10a → 330kg/10a)라는 성과를 내었다. 또 정부 구매 및 가공업체로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를 농가로 환원 배당하여 회원농가의 소득을 일부 보전하였다.

특히, 올해는 장기간 지속된 고온 및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 피해가 발생하였고, 논콩의 정상적인 재배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하지만, 법인 회원들이 합심하여 수로 인근 재배지에는 펌프를 이용해 물을 댔고, 수로와 떨어진 재배지에는 지하수를 이용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가뭄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했다.

또한, 논콩 병해충 발생 억제 및 생육 안정화를 위해 방제, 비료 및 영양제 살포 등을 지원했다. 이처럼 가뭄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전년도 대비 생산량의(330kg/10a 예상) 감소를 피할 수 있었다.





생산단지의 높은 수량성 확보, 생산-가공까지 통합 시스템 구축 목표

경기도에는 2023년까지 SPC(콩종합처리장)가 없었다. 이 때문에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콩을 타 지역에서 선별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법인은 선별시설 및 가공시설 구축 등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다.

‘23~24 발작물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으로 콩종합처리장을 준공(24년) 하였고, 약 300톤을 선별, 판매하여 생산비를 절감(물류비 감소)했다. 그 결과 농가 소득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진 대표는 “회원농가와 청년 농업인들이 콩 농사를 해보니 재배 방법도 쌀농사에 비해 비교적 쉽고 소득도 올라 타 작물 재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논콩 재배면적을 200ha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앞으로 1차 산업을 넘어 가공산업 등 6차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해 이천을 대표하는 콩 가공 제품을 생산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회원농가의 소득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진청장상

전남 화순 천운농업협동조합



청년농업인 중심의
경영체 운영 및 영농 추진



타지역 선도사례 견학



교육을 통한
품질향상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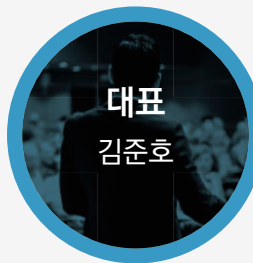
논콩-보리(조사료)의
2모작 작형을 도입



재배면적 증가
(42.8ha → 62.8ha)



생산단수
4103kg / 10a



대표
김준호



소재지
전남 화순군 사평면
사화로 223



농가수
121농가

· 천운농업협동조합 기본 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재배면적	62.4ha * 논콩면적 : ('23) 42.8ha → ('24) 62.8ha
재배품종	선풍
생산단수(10a당)	('23) 353kg → ('24 예측) 410kg
작부체계	1모작(논콩) + 2모작(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매계약	자체수매
보유 농기계	콤바인 2, 트랙터 2
보유 시설·장비	없음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경영체 운영 및 영농 추진



제 4회 우수콩 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장려상을 차지한 전라남도 화순군에 위치한 천운농업협동조합은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경영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콩 재배 전문기술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천운농업협동조합은 화순군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복합영농(축산) 농가와 친환경재배 농가 중 논콩 생산농가를 규합하여 논콩 전문생산자 조직을 만들었다. 이 법인의 회원들은 화순군 내 최대 콩재배 법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법인은 화순군 사평면을 기점으로 관내에서 콩 재배농가를 확보하여 생산단지의 조직 및 콩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있다.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투명하고 명확한 운영위원회 활동을 지향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속한 의사결정 및 사업계획 수립, 적시적기에 맞는 사업 추진(품종 선택, 재배 시기, 수확 일정 조율 등)을 위해 회원 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화순군은 논 타작물 지원정책을 늘리고, 위탁영농 면적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또 신규 유입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농작업 일정 우선 배정, 시비 및 방제기술 공유, 작업단 및 이사진의 재배관리 지원 등 기술력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신규 참여농가가 안정적인 수익을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신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한편, 논 면적이 작은 화순군에는 지역 내 콩재배 필지가 분산되어 있다. 이에 타 경영체와 연계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콩 재배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그 후 법인 소속 회원농가 및 연계 법인에게 이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안정적인 콩 생산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법인은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공동영농면적 확대를 추진하였다 (42.8→62.8ha). 생산단수 향상을 위해서는 논콩 재배기술 교육 독려, 재배 전문가 컨설팅 초청 등을 통해 논콩 재배기술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나아가 천운농협은 재배지의 토양 분석자료에 기초한 논콩 재배기술(파종 간격, 파종 시기, 이랑 깊이 등), 재배관리 등의 기술을 농업기술센터 및 국립식량과학원 등을 통해 교육받았다. 그 후 이 지역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 회원농가를 지도하고 있다





지속적인 품질향상 노력 (선도법인 견학, 콩재배 전문기술 교육 등)

천운농협은 다수확 및 안정생산기술을 확보하고자 농업기술센터의 자료를 확보하여 회원들과 공유하였다. 또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사업 교육, 컨설팅 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회원농가들이 논콩 다수확 안정생산기술 교육 및 컨설팅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한 것이다.

또한, 논콩재배 우수생산단지 및 다수확 안정생산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근 지역 선도법인체를 견학했다. 이를 통해 해당 법인이 회원농가들에게 재배기술로 보급한 내용, 즉 토양 관리, 시비 관리, 병해 관리 등의 재배 기술을 청취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게다가 천운농협에는 축사(한우)를 겸업하고 있는 회원들이 많다는 점을 십분 활용했다. 축분퇴비를 활용해 토양의 지력을 올리는 타 지역의 사례를 활용하여 논콩 재배 이전 축분퇴비를 시비하여 지력을 확보하고, 파종 및 재배 관리를 시행한 것이다. 그 결과 평균 생산단수가 증가하였다 (300kg/10a→410kg/10a).

천운농협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생산단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지력 증진, 파종, 방제, 수확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회원농가가 안정적으로 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기술력을 높이하고자 한다.



토양검정 및 축분퇴비를 활용한 지력 증진 및 공동영농관리

천운농협의 회원들은 대부분 축산(한우)단지를 겸하고 있다. 이에 논콩-보리의 2모작 작형을 도입하여 참여농가의 소득 향상을 도모한다. 또 타 법인에서 전해받은 지력 증진 및 다수확 생산기술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시설에서 만들어진 축분퇴비를 재배지로 환원해 지력을 보강하고 있다.

축분퇴비는 매년 3월경 동계작물 수확 후 농업기술센터의 토양 검사를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다. 토양 내 유기물 함량 2.6% 기준으로 10a당 평균 약 1톤을



부리도록 권고한다. 또 비료의 함량은 재배품종에 따라 복합비료(8-8-9)를 활용하도록 한다. 일반토지는 40~50kg/10a, 토양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는 70~80kg/10a 이상을 살포하고, 추비는 개화기 10일 이후에 요소비료를 4~5kg/10a 수준으로 살포하도록 권유한다. 콩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관리하는 것이다.

천운농협은 비료 함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장을 관리한다. 특히 공동영농작업단이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되, 장마기 침수 피해 예방, 고온기 가뭄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둔다. 논콩의 생산단수의 저하는 대부분 기상이변에 의한 생육 저하, 병해충에 의한 2차 피해 확대에 중점을 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생산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병해충에 관해서는, 해마다 논콩 생산단수의 증대를 위해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하였다. 장마기에는 신속한 배수 관리로 2차 피해(부리썩음병 등)를 예방하였다. 또 고온기 가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물대기와 추가 비료 살포를 시행해 콩의 안정적인 생육을 지원하였다.





화순군 관내 생산 콩의 종합유통관리시설 구축 목표

천운농협은 화순군 관내 콩 생산자를 규합하여 공동영농면적을 확대하고, 협회를 조직하고자 한다. 최종 목표는 법인 단위 운영조직을 한 개의 연합체로 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디딤돌로, 천운농협은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의 사업다각화 사업을 지원하여 공중합처리장(SPC)을 신축하기로 하고, 24년 12월 준공하였다. 공중합처리장 설비가 완료됨에 따라 천운농협은 생산에서 선별, 저장, 출하까지의 콩 종합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향후에는 인근 지역의 물량을 확보하여 이 지역 논콩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천운농협은 “화순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의 품질을 향상시켜 신뢰도를 높이고, 출하처의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이를 발판 삼아 회원의 조직 및 다수확 안정생산기술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농진청장상

경남 사천 공사랑영농조합법인



지역적 특성에 맞는
품종 선택



재배단지 규모화 및
기계화 영농 추진



지력증진을 위한 동계
녹비작물 활용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회원농가 소득 보전



재배면적 증가
(193ha → 205ha)



생산단수
371kg / 10a

대표

조영제

소재지

경남 사천시 곤명면
봉명로 219

농가수

273농가

· 공사랑영농조합법인 기본 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재배면적	205ha * 논콩면적 : ('22) 170ha → ('23) 193ha → ('24) 205ha
재배품종	대원, 선풍, 서리태
생산단수(10a당)	('22) 293kg → ('23) 326kg → ('24 계속) 371kg
작부체계	1모작(논콩) + 2모작(밀, 귀리, 조사료)
수매계약	자체수매
보유 농기계	콤바인 4, 트랙터 3, 정전기 2, 방역방제기 2
보유 시설·장비	콩종합처리장(정선, 선별시설)



생산단수가 낮은 환경임에도 지역적 특성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여 공동영농을 체계적으로 운영

제 4회 우수콩 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장려상을 차지한 경상남도 사천시에 위치한 공사랑영농조합법인은 생산단수가 낮은 환경 여건임에도 지역적 특성에 맞는 품종의 도입을 위하여 시범포 운영을 통해 논콩 적합 품목을 대원에서 청자5호, 선풍으로 전량 대체하여 보급하고 있다.

공사랑영농조합법인은 법인 장비와 회원농가의 장비를 활용하여, 콩과 귀리의 이모작 작부체계 도입, 논콩 적합 품종 재배 시연 및 표준재배 매뉴얼 보급을 통해 회원의 논콩 재배기술 지도, 기계화 작업으로 영농작업 편의성 도모 등 공동영농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확품종 선별 보급, 기계화 작업 가능 종자 선별, 파종부터 수확까지 5개 작목반을 중심으로 자재 공동 구입 등 공동영농을 통한 재배기술 통일과 이를 통한 품질향상, 단수 증대 등 공동영농을 실천 중에 있다.

또한 파종 및 수확 작업비 할인 제공, 콩 정선 선별비 환원 등을 통해 참여농가의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6.2% 증가(193ha→205ha)하였으며,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참여농가들에게 조직화·재배기술 교육 및 선진지 견학 기회를 제공하고,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영농작업을 위한 장비를 구입·보급하여 영농작업의 기계화를 추진하고 생산단수를 371kg/10a까지 확대하였다.



논콩 단지확대 및 집적화를 통한 기계화 영농 추진, 지력증진을 위한 동계 녹비작물 활용

콩사랑영농조합법인은 사천시 곤명면을 중심으로 공동영농면적 및 생산능가를 확대하였다(193→205ha). 논 타작물(논콩) 단지를 확대하고, 파종에서 수확과정까지 기계화 공동영농작업을 도입한 결과, 생산비용 및 노동력 절감 효과를 끌어내고,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는 중이다.

법인의 노력은 기계화 영농 추진 과정에서도 잘 보인다. 법인은 생산단지에 논콩 생육시기별 적정 장비를 투입하기 위해 우선 작목반별 영농자재 및 농기계 사용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그 후 단지별로 적합한 농기계를 지원하고, 공동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농가의 생산 비용 및 노동력 절감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보급종 종자 보급 및 활용, 연작 피해 방지를 위한 돌려짓기 실시, 참여농가 재배기술 교육, 논콩 선진지 견학 기회 제공,



작목반별 작목반장들 관리하에 단지별 수시 예찰, 적기 농작업을 위한 추가 시설장비 도입 등을 실시했다. 여기에 더해 논콩 생산단지 확대 및 집적화를 통한 기계화 영농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목반과 협의하여 하계 논콩과 가장 적합한 이모작 작부체계를 구성(동계 밀, 귀리)하고, 지력 증진을 위해 동계 녹비작물을 활용하는 등 참여농가의 생산단수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 종합유통시설을 운영하여 농가소득 및 재배규모 확대

콩사랑영농조합법인은 자체적으로 콩종합유통처리시설(SPC) 1동(399㎡)을 보유·운영 중이다. 저온저장고, 정선시설(자동선별포장라인), 일반저장창고 등을 보유하여, 콩 파종부터 수확 후 정선, 선별, 저온저장, 포장 출하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벨류체인을 구축하였다.

또한 계약재배(두부 및 나물콩 4,000톤, 낫토용 100톤, 나물용 녹두 200톤 등)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였다. 또 자체 가공 판매 및 유통망 확보 등을 통하여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신제품인 낫토 전용콩의 재배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해 수미품종 시범포 운영을 진행해 왔다. 2년 전부터 실용화재단과 종자를 계약해 농가에 우수품종을 보급하는 성과를 거두는 중이다.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서는 콩을 활용한 가공사업을 추진해 왔다. 콩 가공식품(두유, 검정콩두유 등)을 OEM생산하여 유통판매하는 체계를 확보했고, 25년부터 전국으로 자체 판매할 계획이다. 앞으로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여 콩 생산능가를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aT사장상

부안 하이영농조합법인



논콩 재배 기술 교육,
컨설팅 시행을 통한
재배기술 강화



안정적인 판로처 확보로
회원농가 및 재배면적의
규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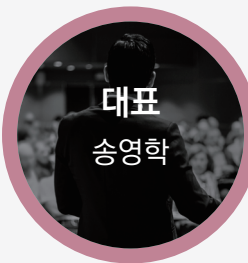
규모화, 안정생산기술력
확보 등으로
국산콩 생산력 강화



재배면적 145% 증가
(120ha → 294ha)



생산단수
395kg / 10a



대표
송영학



소재지
전북 부안군 백산면
금판로 200-2



농가수
110농가

· 하이영농조합법인 기본 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재배면적	294ha * 논콩면적 : ('22) 75ha → ('23) 120ha → ('24) 294ha
재배품종	대찬, 선풍
생산단수(10a당)	('22) 300kg → ('23) 365kg → ('24 계속) 395kg
작부체계	1모작(논콩) + 2모작(보리, 밀, 조사료)
수매계약	정부수매, 자체수매
보유 농기계	콤바인 3, 트랙터 2, 정선기 2, 방제기 2
보유 시설·장비	콩종합처리장(콩 정선, 선별시설)



교육·컨설팅을 통한 논콩 재배기술 강화 및 표준 재배기술 확립



전북 부안에 위치한 하이영농조합법인은 지역 내 논콩 재배 우수생산단지로 손꼽힌다. 논콩 재배기술 및 다수확 생산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도법인 체이며, 부안군 내부 및 타 지역에서 논콩 재배기술을 배우고 선별시설·유통 시설 등을 견학하기 위해 많은 생산단지 법인들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하이영농조합법인은 우수재배기술을 교육받고 선별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법인들과 업무 협약을 맺어 상생하는 법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본 법인은 공동영농을 통해 체득한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지역 논콩 재배지의 지력 증진, 파종, 방제, 수확 등에 관한 내용을 교류한다. 이를 통해 하이영농조합법인만의 안정적인 논콩 생산기술을 개선하여 회원농가에게 배포하고, 재배 경험을 축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법인은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컨설팅사업을 지원 받아 회원 간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였다. 또 전속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에 따라 논콩 재배기술력 강화, 공동영농작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농업생산비의 절감 효과 등 농가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회원농가들이 콩 재배를 통해 소득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안정적인 판로처 확보로 회원농가 및 재배면적의 규모화

하이영농조합법인은 법인 내부 규약 개선을 통해 경영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유통구조 및 마케팅을 관리하여 소비자의 변화를 파악한다. 그 결과 소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포장 제품을 공급하여 매출을 높임으로써 법인 및 회원의 소득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다.

본 법인은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과 발작물 공동경영체사업을 통해 콩 정선시설 2기를 확보했다. 또 정선시설 1기가 시간당 6톤을 정선·선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 회원농가에게 수매한 콩을 효율적으로 정선·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각각의 선별라인은 백태(일반콩)와 서리태(검정콩)로 구분하여 품종 간의 혼입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색채선별기와 입자선별기를 선별시설에 추가하여 선별된 콩의 품질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수매 및 가공기업으로 납품하는 콩의 품질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또 회원농가에게 높은 등급으로 콩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을 환원하였고, 이는 회원농가의 소득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신규



회원 및 논 콩 재배면적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회원농가는 110명, 재배면적은 294ha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이다.

하이영농조합법인은 신규 회원농가들의 유입에 발맞추어 일괄적인 계약 재배를 추진하여 논콩 전문재배단지 및 회원농가의 확대를 유도하였다. 또 재배기술자료 공유, 병해충 방제 및 비료시비 지원 등의 환원사업을 통해 논콩 생산단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영농 규모화, 우수 생산기술력 확보로 논콩 생산 의지 강화

하이영농조합법인은 지역 내외의 논콩 재배 우수생산단지 및 다수확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도법인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현장 견학, 재배기술 공유 등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여 우수재배기술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미가입 농가들을 대상으로 회원농가 가입을 유도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계약재배를 활성화하여 회원농가 및 재배면적을 확대하고자 한다. 기존 농가 중에서 우수 재배기술을 보유한 농가를 선도농가로 지정하여 해당 선도농가의 기술을 마을 단위로 공유하도록 체제를 개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본 법인은 회원농가의 농작물을 안정적이고 빠르게 정선·선별하여 생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고, 수매 및 가공기업으로의 판매 시 품질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선·선별시설을 전담 관리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또한 정부 수매의 비중을 줄이고 민간 판매처를 다양화하여 향후 더 높은 소득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aT사장상

경북 상주 나누리영농조합법인



공동영농작업단의
영농작업별 전문인력 및
전용 장비 운영



회원농가 관리 및 재배기술
공유 등의 공동영농 활성화



파종 전 조류퇴치 교육
및 종자소독 관리체계
구축



재배면적 12% 증가
(130ha → 146ha)



생산단수
385kg / 10a

대표

오춘환

소재지

경북 상주시 함창읍
어룡로 238-17

농가수

137농가

· 나누리영농조합법인 기본 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재배면적	146ha * 논콩면적 : ('23) 130ha → ('24) 146ha
재매품종	선풍, 대찬, 대원, 선유2호
생산단수(10a당)	('23) 297kg → ('24 예측) 385kg
작부체계	1모작(논콩) + 2모작(밀)
수매계약	자체수매
보유 농기계	콤바인 3, 트랙터 1, 드론 1기
보유 시설·장비	콩 종합처리장(3톤/시간), 저장고(500톤)



영농작업별 전용 농기계 운영으로 공동영농활성화



제4회 국산콩 우수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특별상을 차지한 주인공은 나누리영농조합법인이다. 2016년에 설립된 본 법인은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해 있으며, 논콩 전문 생산단지로서 경북 지역의 대표적인 선도 농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누리영농조합법인은 논콩 재배기술의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마을 단위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공동영농작업단을 구성하여 논콩 생산기술의 통일, 균일한 생산품질 유지 및 생산량 증대에 초점을 두고 논콩 재배기술을 전파하는데 주력하였다.

본 법인은 공동영농작업단을 중심으로 영농작업 일정을 정리하여 경운, 파종, 방제, 수확 및 재배관리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 또 법인 및 회원농가의 보유 장비를 활용하여 영농 시기에 맞는 장비를 배정했다. 이로써 논콩의 생육 시기별 영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체계적인 공동영농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나누리영농조합법인은 지형적인 특성상 낙동강 지류 지역으로 사질토가 많고 배수가 양호해 콩 재배지로 적합하다. 이런 지역 특성을 살려 재배면적 확대와 공동 작업을 통한 노동력 절감에 힘쓰고 있다.



품질향상, 생산량 증대, 공동영농을 통한 재배기술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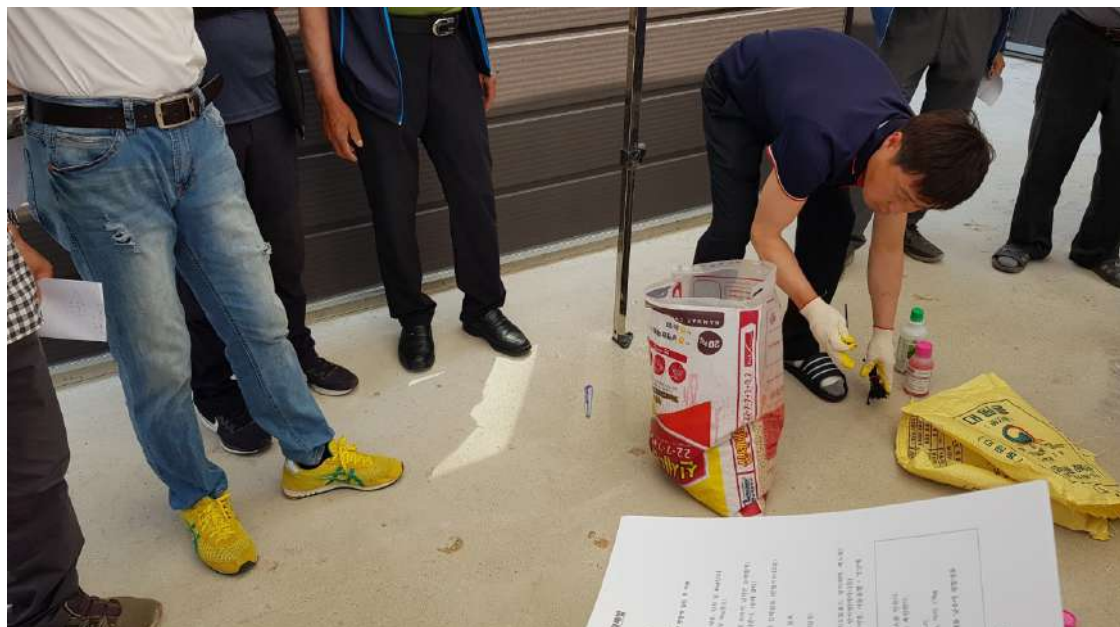
본 법인은 공동영농작업단의 생산체계 확립 및 회원농가의 재배기술 강화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회원농가의 교육 참여를 독려하였고,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논콩 재배기술 교육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 결과 논콩 재배기술, 수확 후 관리에

대한 지식 습득 및 기술 공유로 논콩 생산품질 균일화를 이끌어 내었다.

공동영농작업단은 매년 회원농가와 논콩 재배계약을 하고, 재배면적 및 작물재배 시기를 조율하여 영농작업(파종, 시비, 방제, 재배관리, 수확 등) 일정 관리 및 수확 후 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를 통해 콩의 품질 유지 등 고품질 생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논콩 전문 생산단지 참여농가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논콩 생산단지 재배기술 컨설팅을 통해 고품질 콩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포장재 지원, SPC 콩 선별비 할인 지원, 농약 및 영양제 공동구매 지원, 공동영농기계 이용 지원 등의 수익금 환원을 진행하고, 공동영농에 필요한 장비 등 재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정적인 콩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논콩 파종부터 피해방지 집중교육으로 생산량 향상

논콩 전문 생산단지를 운영하는 나누리영농조합법인은 콩 생산에 가장 필요한 기술인 파종 시기 조류 피해 예방과 종자소독 방법 등을 집중 교육하고, 실제로 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실시해 정례화하였다.

본 법인이 이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목적은 논콩의 조류 및 병충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논콩 재배농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우수기술서를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조류 피해 및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논콩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증수하는데 구체적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파종 전에는 조류 퇴치 및 종자소독 교육을 시행했다. 콩 파종 시 문제가 되는 조류 피해에 대한 인력 투입 방법과 종자소독을 통한 기피제 첨가 방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종자소독에 의한 조류 피해 방지 효과가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검증되어 농가가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종자소독 시 미량요소를 투입하여 콩 파종 후 발아율 저하를 예방하였다. 콩 재배기간 중 적절한 미량요소를 투입하면 콩이 양호하게 생육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조류 및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그물망 설치 사업을 시행하기도 했다. 콩 생육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조류 등 야생동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작물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나누리영농조합법인은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 및 생산관리 지원으로 논콩 전문 생산단지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노력한다. 참여 회원농가 또한 논콩으로 생산량 증대 및 소득 증대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향후 논콩 전문 생산단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품질 생산관리체계 운영으로 소득 기여

법인은 시간당 3톤의 선별시설과 저장고를 확보함으로써 500톤 이상의 콩을 저장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2024년도 두류계약재배 1,800여 톤의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 구매에 의존하던 판매량을 식품기업과의 납품 계약을 통해 식품 가공기업 판매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또한 논콩으로 작목을 전환하는 참여농가에 대해 구매물량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콩 재배면적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SPC 준공으로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물류비를 절감하여 참여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상주시농업기술센터와의 협조를 통해 계약재배사업을 확대하고, 단지별 재배기술 표준화를 통해 고품질 콩을 생산, 공동선별함으로써 콩 재배 농가의 기계화 촉진, 식량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지역에 맞는 콩 생산, 가공품으로 소득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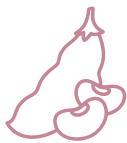
나누리영농조합법인 대표는 “현장 명예연구관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새로운 재배기술이나 품종이 나왔을 때 빨리 접할 기회가 있고, 시범포를 운영하면서 배우는 것이 많다”고 했다. 외부 정보를 빨리 접하고, 회원농가에게 이를 알려주면서 회원농가의 소득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법인은 경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검정콩) “빛나두”를 시범 재배하여 258kg/10a의 생산량을 산출했다. 기존 청자3호(242kg/10a) 대비 8% 높은 수량이다.

법인 대표는 “경북에서 개발된 품종인 ‘빛나두’가 반짝거림이 강해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콩으로 유명하다”면서 “우리도 이에 발맞춰 지역 특화품종 활성화에 기여하여 생산단지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류 제품 생산 참여를 유도하여 겨울에 소일거리를 제공하고자 담꽃새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다. 이를 통해 동절기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마을이 활기를 찾게 되었다.

법인대표는 “재배와 가공이 맞아떨어지면서 마을의 분위기가 더 좋아진 것 같다. 나누리영농조합법인과 담꽃새영농조합법인이 함께 연계하여 생산과 가공을 병행한다면 앞으로 경북 지역에서 가장 큰 생산단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T사장상

전북 진안 농업회사법인(유)문스빈



재배면적 및 농가수가
확대를 통한 영농의 규모화



채종포단지의 공동
영농작업을 통한
표준생산기술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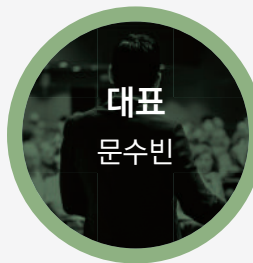
신규 장비 도입으로
수확 후 관리 및 품질안정화



재배면적
(52ha)



생산단수
458.6kg / 10a



대표
문수빈



소재지
전북 진안군 진안읍
연거로 49



농가수
55농가

· 농업회사법인(유)문스빈 기본 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재배면적	52ha * 논콩면적 : ('22) 17.1ha → ('23) 51.4ha → ('24) 52ha
재매품종	선풍
생산단수(10a당)	('23) 380kg → ('24 예측) 458kg
작부체계	1모작(논콩) + 2모작(보리, 밀)
수매계약	채종포, 자체 가공
보유 농기계	콤바인 2, 트랙터 1, 방제기 1
보유 시설·장비	없음

채종포단지로 시작한 논콩 전문생산단지



제 4회 국산콩 우수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다수확상을 수상하게 된 농업회사법인(유)문스빈은 2022년 전북 진안군에서 채종포단지로 논콩 생산단지를 시작하였다.

전북 진안군은 논면적이 적고 평야지대가 적어 쌀농사 이외의 하계 작물은 대부분 채소류 위주의 농업을 선호하는 지역으로 진안군 행정에서조차 논콩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지역이었다.

농업회사법인(유)문스빈은 콩 생산면적이 작은 진안군에서 논콩의 생산면적의 확대 및 농업 생산소득을 늘리기 위해 국립종자원에서 운영하는

채종포단지를 운영하고자 지역에서 일부 콩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를 찾아가 채종포단지의 운영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했고 약 17ha의 채종포단지를 확보하여 신청함으로써 논콩 전문생산단지로의 첫발을 내딛었다.

채종포 단지를 운영하면서 매년 체계적으로 채종포 단지의 경영일지와 공동영농일지를 작성하면서 기후변화, 생산량 변화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생산비 조사를 통해 매년 경영비 절감 효과와 생산 측면에서 안정적인 다수확 생산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었다.



체계적인 학습을 통한 논콩 생상품질의 균일화 확립

본 법인은 채종포단지 운영을 통해 경영일지와 영농일지를 작성하면서 기후변화, 생산량 변화 등의 경험을 수집했다. 또 생산비 조사를 통해 매년 경영비 절감 효과를 이끌었고, 다수확 생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법인은 논콩 고품질 생산기술 확보를 위해 타 지역의 사례를 수집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생산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채종포단지 운영 기본 재배 매뉴얼을 기초로 하여 회원농가에게 논콩 재배기술 교육을 시행하였다.



나아가 외부의 농공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지도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했다. 토양관리에서부터 수확 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1명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현장지도 교육을 진행하였다.

전담 전문가가 다년간 법인 및 회원농가의 현장지도 및 재배기술 관리를 지속하자, 진안군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재배기술을 확립할 수 있었다. 진안군의 기후와 날씨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누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농공 생산단지 운영을 안정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개선된 생산매뉴얼을 배포하여 농공을 재배하도록 지도, 관리하고 있다. 공동영농에 따른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회원총회를 통해 재배지의 기술적인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토론하여 농지별 맞춤형 공동영농을 실시하였다.





시험재배를 통한 경험 축적 및 재배기술 개선으로 생산량 증대 기여

법인은 토양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파종 전에는 유박비료 및 복합비료를 시비하여 논콩 생산에 필요한 비료 성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였다.

하지만, 재작년 집중호우로 인해 토양에 있는 비료 성분이 유실되었다. 이에 추가로 비료를 살포하여 논콩 생산량을 보전하는 데 많은 비용을 소모했다.

법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했다. 그래서 작년부터 퇴비와 유박비료를 뿌려 경운을 한 후 콩 전용 완효성비료(공기 중 수분에 의해 천천히 비료 성분이 나오는 알갱이 비료)를 사용하고 있다. 호우 시 비료 성분의 유실을 막는 방법이다. 파종 후부터 수확 전까지의 생육기간 동안 비료를 지속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량 증수 효과를 보았다.

병해충 관리의 측면에서는 7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발생하는 병해충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약제를 살포하여 관리 감독하였다. 채종포단지에는 페로몬을 활용한 유인방제트랩을 설치하여 시범포로 운영하였다.

페로몬 유인방제 트랩을 설치한 시험포에서는 병충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트랩을 확인함으로써 병충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효과적인 병충해 방제 역할을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렇듯 철저한 관리를 통해 회원농가의 논콩 평균 생산량은 전년도 330kg/10a에서 올해 평균 390kg/10a 이상을 기록했다. 또한 국산콩 우수생산단지의 계측필지에서 458kg/10a를 수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수확 후 품질관리 관리체계 구축 및 자체 가공상품 개발로 유통 확보

법인은 회원농가에서 수확한 콩을 선별하여 판매하기 전 자체 개발한 “휴대용곡물건조기”를 사용하여 채종포 수매와 장류 등 가공기업에 콩의 적정 수분 함량을 유지하여 판매하고 있다.

휴대용곡물건조기는 시간당 0.2%의 수분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국립종자원에서 요구하는 적정 수분함량(14% 이하)을 유지하여 품질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고, 국립종자원으로부터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회원농가의 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법인은 자체 가공시설을 운영한다. 이 가공시설을 활용해 회원농가가 생산한 콩으로 두부를 생산하고 있다. 소비자의 입맛을 고려하여 청양고추두부, 손두부, 흑임자두부, 한입두부 등의 상품을 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손두부-청국장-비지-콩물-두유 형태로 가공식품을 판매하여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향후 소비자의 기준에서 소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가공품을 개발하고 지역특산품과 연계하여 다양한 콩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4 국산콩 우수생산단지 사례집

발 행 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발 행 일 2024년 12월

제 작 한서아그리코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소유하고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의 무단 게재를 금합니다.